

임실N치즈축제 준비 빠르게

내년 10월 3일~6일 개최 확정

임실군의 대표축제로 4회 연속 진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임실N치즈축제가 내년도 성공축제 신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발빠른 준비에 착수했다.

임실군은 '2019 임실N치즈축제' 개최 일을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올해 축제의 ভাল 점과 미흡한 점을 종합적으로 평가, 내년도 축제에 적극 반영하는 등 축제준비에도 본격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달 27일 제2회 위원, 대행사, 컨설턴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 및 자체평가 보고회를 마쳤다. 심도있는 의견교환과 논의 등을 거쳐 올해 미흡했던 부분은 내년도 축제에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군과 위원회는 2018 임실N치즈축제가 끝난 직후 참가 업체별·기관별 소관사항에 대해 의견청취 및 자체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개선책을 강구하여 축

제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 및 단계별 로드맵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축제 일정이 확정된 만큼, 대 행사 선정 등 세부실행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19 임실N치즈축제는 관광객을 위한 산업관광형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현재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추진 중인 장미원이 조성되면, 봄에는 장미와 함께하는 축제를, 가을에는 국화와 함께하는 축제로 사계절 내내 전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도 꾀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태풍 공레이와 평일이 라는 다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제 전후 8만명, 축제기간 27만명 등 총 35만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았다.

문화관광축제의 위상에 걸맞는 인과가 불렸으며, 107억원의 지역경제 직접효과와 3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며,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차별적이고 성공적인 축

제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년간 임실N치즈축제는 110만여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5년 연속 '임실N치즈' 대표브랜드 선정, 지역경제 파급효과 최대 400억원, 전국에서 가장 먼지피는 3만여개 화분에 심어진 천만송이가 넘는 국화 등 진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심 민 임실군수는 "임실N치즈축제는 단순히 이벤트성 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치즈의 원조, 50여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임실N치즈를 테마로 한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축제"라며 "임실치즈 원조인 지정환 신부님과 지역민의 열이 담긴 축제로서 임실군민의 자긍심이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미공원이 조성되면, 일년에 두 번에 걸쳐 치즈축제를 열 어갈 것"이라며 "축제 관광객 100만명 유치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4000억 예산 시대 여나?

추경예산 4045억원 편성

순창군이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18억원(3%↑)이 증가한 4,045억원을 편성해 순창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3,875억원, 특별회계 170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각각 119억원이 증가하고, 1억원이 감소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의 재원은 제2회 추경 후 발생한 지방세 수입 10억원, 세외수입 50억원 그리고 교부세

등 61억과 국·도비 보조금 3억원 등 총 118억원의 재원을 활용해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억 5천만원, 삼진강 주변도로 인명피해 다발지역 개선사업 4억원, 복식 세전 정비사업 2억원 등이다. 또 긴급한 재해·재난 예방사업과 논농업환경보전 작불금 6억4천만원, 벼짓을 활용한 지역중진사업 3억5천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장비 교체사업 2억원 등이다.

순창군은 향후 중추적인 전라산업인

장류 및 미생물관련 사업과 농축산분야 지원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 투자를 위한 여유재원을 확보하고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통해 예비비를 증액 편성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산추경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순창군이 처음으로 4천억원 예산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예산편성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지자체협력사업 평가 '대상'

남원시와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박해근)이 6일 농협중앙회에서 주최해 중앙회 대강당에서 실시한 2018 지자체협력사업 우수조직평가 결과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지자체와 연합사업조직(조합법인)의 정책사업 공동추진, 공동브랜드 육성, 지자체 협력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지자체에 주는 상으로, 남원시가 수상한 '대상'은 본 평가의 최고상으로써 부상으로 상금 100만원과 특전으로 지자체의 연합사업조직에 2019년 경제사업활성화 기금으로 5백만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남원시와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약칭 '남원조합법인')은 농산

물통합마케팅 공동추진,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육성을 비롯해 도농인력지원센터운영, 농기계작업단 운영 등 및 농가소득향상과 농가일손 부족 해소에 적극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남원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남원조합법인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통합마케팅에 적극 참여한 농가와 참여 조직의 끈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뜻 깊은 일이다. 남원시는 2013년부터 '춘향애인' 공동브랜드와 농산물통합마케팅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적극 육성·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관리와 마케팅에 중점을 둔 농산물 산지유통

시스템을 갖춰 농산물 통합마케팅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남원시조합법인의 금년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매출실적은 11월 말 837억원으로, 올해 말에 840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농산물 통합마케팅 원년인 2013년의 매출실적인 600억원보다 월등히 향상된 수치로 전국 시·군 단위 지자체 중 최고로 인정받는 통합마케팅 조직이다.

한편, 이강조 원예허브과장은 "다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농산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생산 농가들의 농산물 통합마케팅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리산권 7개 시군의회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건의문을 작성했다.

지리산권 국립공공의료대 설립 촉구

지리산권 7개 시군의회 공동건의문 작성

지리산권 7개 시군의회(남원, 장수, 곡성, 구례, 하동, 산청, 함양)는 지리산권 의료취약지 공공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4월 당정이 결정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5일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국회에 전달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

건의문에는 지난 4월 11일 국민의 건강권 및 낙후된 의료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당정협의로 서남대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키로 결정한 후, 9월 21일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김태년 의원 외 21명)하였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공공의료대학 설립 의지가 있

는지 우려를 담고 있다.

이에 지리산권 시군 의회의장은 지리산권 7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의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국민이 응급사고 발생시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안타깝게 잃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금년에 통과하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의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윤지홍 남원시의회 의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거주지에 따라 의료혜택을 차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공공의료 인력을 배출하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체계적인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병행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은 순창군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결정에 위촉장 수여했다.

순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촉

순창군이 6일 군청 영성회의실에서 이날 위촉식에서 황숙주 군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순창군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증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며 "군민들로부터 적절하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10명을 선정해 구성했으며 서한복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남원시노인복지관이 지역사회 독거노인의 우울증 경감 및 고독사와 자살을 예방하고 사회관계망을 확대하여 독거노인의 상호돌봄체계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복에서는 최초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남원시노인복지관은 2014년부터 남원 지역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도모 및 상호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독거노인친구 만들기'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후 매년 선정되면서 5천만명(국비 35, 시비 15)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왔다.

남원시는 읍면동사무소, 의료기관, 이통장, 이웃주민, 유관기관, 후원자 등과 협력으로 대상자 발굴 및 독거어르신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며, 독거어르신의 프로그램 참여와 자조모임 등을 통해 대인관계,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마을 내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 독거노인의 우울감 해소 및 고독사, 자살 예방을 위한 상호 돌봄체계를 구축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독거어르신의 우울증 해소와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임실군이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전개로 군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영양플러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결핍의 위험군에 속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영양교육과 특정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여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먼저 군은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대상자 6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보충식품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영양보충식품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월 2회 가정으로 배송해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들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군 보건의료원 김형진 원장은 "영양상태 및 관리능력이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영양보충식품 제공을 통해 빈혈개선과 대상자의 영양관리 자조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